

‘YWCA 1922 장학금’ 후원자 1922명을 모십니다

1922년 4월 22일 ‘암매한 여성사회에 빛이 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이 모여 YWCA를 창설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창립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YWCA 1922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100주년 기념 장학금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20명씩 장학금 지급
- 1922명의 후원자, 100명의 장학생

모금방법

- 1922명의 후원자가 매년 1만원씩 후원
-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참여문의

연락처 02-774-9707(한국YWCA연합회, 장학위원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역협력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7년 3월호
March
Vol.538

이달의 생각

왜 성찰과 고백인가

95주년 특별좌담

YWCA 사명을 ‘다시’ 생각하다

이달의 이슈

YWCA 청년들이 뽑은 대선 키워드

이달의 현장

2017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현장





‘나눔정신’ 실천한 제32대 회장 문태임

“쓰고 남는 것으로 돕는 것은 도움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는 재산을 늘리지 않고 그때마다 근검 절약하여 보람 있는 일에 쓰고 싶다.”

문태임(1910~2012)은 경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생활을 하다가 1958년 대한YWCA연합회(현 한국YWCA연합회) Y-틴 위원과 위원장을 시작으로 연합회 실행위원, 건물관리위원장, 재정위원장, 연합회 후원회 이사 등을 두루 거쳤다. 1985년 제32대 YWCA 회장에 선출되어 1988년까지 재임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만물이 공항에 마중나온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곳 YWCA에 전화해 자원봉사단의 따뜻한 도움을 받았던 일을 생각해 YWCA 위원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봉사자에 대해 ‘순수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가와 한가하게 친목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에 도움주는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그의 꼼꼼함과 성실함은 연합회 회계 책임자로 살림을 맡았을 때 더욱 빛났다. 1967년부터 1982년 부회장이 될 때까지 15년간 회계를 맡았다. 낡고 오래된 연합회 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 기공식을 열고, 1968년 새 회관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흑자로 이끌었다. 회원YWCA가 회관을 마련하는데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합회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후배 지도력 양성에 뜻을 갖고 YWCA 발전에 공을 세운 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의 아호에서 딴 ‘송제 공로상(현재 문태임상)’이 제정되었고, 1991년부터 YWCA 공로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2000년엔 1억원으로 기금을 증액했고, 유가족이 5천만원을 더 기탁했다. 모교인 개성 호수돈여고를 대전에서 재건하는데 앞장섰으며, 인천 송도와 대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송전장학회를 만들었다. 호수돈학원 이사, 정동교회 장로 등으로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학창시절 농구선수를 지낸 그는 맨손체조와 부지런함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103세까지 장수했다.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그는 2003년 제35회 전국대회에서 YWCA 대상을 수상했고, 창립 60주년과 7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인격을 갖춘 조화로운 리더십은 후배들에게 모범으로 남아 있다.

2017.3 한국YWCA



표지이야기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한 세계 여성들이 한국YWCA의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비 건립을 지지하고 있다.

2017년 4월 주요일정

4월 5일

다래교실 협약식

4월 6일

‘길위의 평화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포럼

4월 13일~15일

탈핵씨앗강사 양성학교

4월 20일

전국회장단 연수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TV프로그램상 시상식
창립 95주년 기념예배·기념식

4월 22일, 29일

Y청년 열린아카데미(북·중부)
Y청년 열린아카데미(동·서부)

제53권 제2호 동권 538호

2017년 3월 24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린·정선경
조한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정서연·이기원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왜 성찰과 고백인가 | 한영수
- 05 **말씀 묵상**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 임향자

기획 95주년 특별좌담

- 06 YWCA 사명을 ‘다시’ 생각하다 | 편집실

- 10 **이달의 현장①** ‘No More 후쿠시마’ 제150차 탈핵 캠페인 | 김상은
- 12 **이달의 현장②** YWCA 탈핵주간 전국 캠페인 | 편집실
- 14 **이달의 현장③** 2017 유엔여성지위위원회 | 한국YWCA 참가단

- 16 **이달의 이슈** 청년들이 뽑은 대선 키워드 | 김수진
- 18 **성평등**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이주영
- 20 **강연** 대통령 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 편집실
- 22 **원로에게 듣는다**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 | 편집실
- 24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사일런스’ | 이경순

- 26 **연합회 소식**
- 28 **회원YWCA 소식**
- 36 **한국YWCA 95주년** 95일 기도회
- 38 **일정** 4월의 한국YWCA

왜 성찰과 고백인가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성찰이란 내(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는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고백이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로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을 뜻한다. 한국YWCA는 올해 창립 95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감사와 초기정신 회복을 담은 'Go Back',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성찰하는 고백(告白·Confession),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Go 100'의 행진을 한다.

YWCA는 개화기에 싹트기 시작한 여성들의 자각과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민족개화운동이자 여권운동으로 세계 YWCA와 손잡은 국제조직으로 시작했다. 초창기 문맹퇴치, 물산장려, 공창폐지 등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광복 후엔 기술교육과 여성의 법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힘썼다. 한국 여성운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YWCA는 여권신장운동, 여성직업훈련과 리더십개발, 소비자운동, 청소년청년운동, 평화통일운동, 돌봄운동, 성평등운동, 탈핵생명운동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아픈 역사도 갖고 있다. 1938년 조선YWCA는 일본YWCA로 강제통합되고, 1940년 원산총회를 마지막으로 휴면상태에 들어갔다. 식민지배에서도 끈질기고 주체성 있는 노력으로 세계YWCA에 독립적으로 가입했던 초기정신과 기개에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일제의 내선일체 공작에 무릎 꿇기보다는 차라리 조선YWCA 스스로 해체하는 용단이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절실하지만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뼈아픈 역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논란이 뜨겁던 2015년 11월, 한국 최초의 시민단체이자 민족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민간 단체로서 YWCA는 YMCA와 "친일과 냉전의 미몽에서 벗어나 역사를 직시하고 국민과 대화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YWCA와 YMCA는 "민족독립운동의 일선에서 조선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한 선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친일과 독재의 편에 서있던 역사를 함께 성찰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만큼이나 선배들이 행한 부끄러운 역사를 지금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여사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YWCA는 95주년의 주제를 '고백'으로 정했다. 100주년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깊은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관으로,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우리 역할을 다해왔는지 돌아보기 위함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힘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았는지,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잘 살폈는지, 신앙인으로서 시대아픔을 함께했는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솔직하게 고백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YWCA 역사를 기록하면서 주로 공적과 성과를 정리하는데 치중해왔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드러내 역사를 정직하게 기억할 때 현재를 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순절에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성찰과 고백' 앞에 선 우리의 자신을 깊이 반성해본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임항자
목사·하늘꿈학교 교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늘꿈학교'의 시작에는 김동식 목사라는 한 사람의 밀알이 있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북한 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잇단 수해로 식량난을 겪으면서 탈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꽃제비'라는 탈북고아들도 생겼습니다. 김 목사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탈북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 선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저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는 2000년 납북돼 이듬해 결국 숨졌습니다. 그는 모진 고문에도 단 한 차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3년 어려움 속에서 '하늘꿈학교' 개교를 앞둔 제게 그런 그의 모습은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김 목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많은 탈북고아들이 '하늘꿈학교' 학생이 되었고, 천국의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한 김 목사의 선교는 밀알이 되어 북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늘꿈학교' 출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아이들은 민족이 같다고 우리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량난으로 몸도 약해간염, 폐결핵 등의 질환은 보편적이었습니다. 무조건 폭력을 쓰는 아이, 가족이 그리워 우울증이 있는 아이, 생존과 굶주림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아이, 믿음을 거부하는 아이, 농촌 총각 신부로 팔려온 아이, 40일을 굶은 아이 등등 충격적인 사연을 들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아이들에게 변화의 영향력이 없었고, 아이

들을 교육해 대학을 보내놓으면 유럽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떠나버립니다. 저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것은 교사들과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밀알로 썩어질 준비를 하고 있던 교사들은 아이들의 우울, 그리움, 독기, 반항 등을 다 받아냈습니다.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는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불평에 대해 기도를 하게 되고, 후배를 이끄는 리더십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하늘꿈학교'를 시작한지 15년째인데 졸업생들이 궁금해 먼저 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구마나 계란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시간을 아끼고, 뒤쳐지지 않기 위해 투사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학교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북한 아이들에게서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해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꿈학교'는 하나님의 북한교회 회복과 평화통일의 신호로 믿고 시작했습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이었지만, 광야에 숨겨진 하나님의 길과 사막에 숨겨진 하나님의 물길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졸업생들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복음안에서의 평화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YWCA 사명을 '다시' 생각하다

YWCA가 창립 95주년을 맞는다. 한국YWCA연합회는 1922년 4월 20일 제2차 발기회를 창립일로 정하고 그 정신을 기려왔다. YWCA는 연합회 조직 후 지역 YWCA 결성을 추진해 그해 11월 5일 광주YWCA, 12월 9일 서울YWCA가 창립되었다. 월간 <한국YWCA>는 95주년을 맞은 연합회, 광주YWCA, 서울YWCA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100주년을 향한 사명을 들여보는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일시와 장소 2017. 3. 16(목) 연합회
참석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민혜원 광주YWCA 회장
조종남 서울YWCA 회장
사회 백혜진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장
정리 편집실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절 젊은 여성들이 한국YWCA를 세웠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명혜 ▶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세 지도자들은 개화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미션스쿨에서 교육받고 해외에 유학한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사명과 신앙의 힘, 고등교육을 받은 선각자들은 식민지 국가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여성이 사회에 발붙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YWCA 창설에 나섰다고 봅니다.

민혜원 ▶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상황과 봉건적 사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민족적 차별, 계급적 차별, 남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YWCA 선배들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성성을 초월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하고, 일제치하와 봉건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YWCA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조종남 ▶ 1919년 3.1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며, 가장 열악하고 암울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인 이 땅의 여성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독립과 복음전파를 위해 여성이 먼저 계몽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YWCA는 95주년을 맞아 초기정신인 자발성과 청년성 회복을 내걸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이명혜 ▶ 설립자 김필레, 김활란 선생은 1922년 4월 세계기독교학생연맹회의에 참석해 기독교운동을 '사회봉사와 사회운동을 위한 헌신'으로 정의하는 걸 봅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선각자들은 YWCA 운동의 목적을 '사회봉사와 사회운동'으로 정립합니다.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나라와 여성을 위해 스스로 펼쳐 일어난 '자발성', '도전정신'의 '청년성'이 기반이 되었지요. 시대가 흐르면서 YWCA도 초기정신에 집중하기보다는 양적성장, 명예 등에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100년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며 놓치고 있던 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가 창립된 그해 11월 5일 첫 번째 지역조직으로 광주YWCA가 만들어졌습니다. 배경이 궁금합니다.

민혜원 ▶ 김필레 선생의 친인척인 김함라, 김마리아 선생이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였어요. 그것으로 광주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김필레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여성유학생 일 만큼 깨어 있는 신여성이었고 광주는 일제강점기 사회운동과 청년운동을 포함한 민족독립운동에 가장 민감한 수용력을 보여주는 지성이 살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필연적인 만남이 광주에 가장 먼저 YWCA를 설립할 수 있던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민혜원 광주YWCA 회장



조종남 서울YWCA 회장

한달 뒤 12월 9일 서울YWCA가 만들어져 여성계몽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회원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교육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조종남 ▶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924년 2월 여자노동야학원을 설립해 부녀자교육에 힘썼습니다. 20명 정도로 시작해 기청여학원, 공민학교로 발전했고 2012년까지 88년간 운영했습니다. 여자노동야학원은 우리나라 여성교육,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비문해 여성교육의 모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YWCA가 여성운동에 기여한 바를 꼽는다면?

이명혜 ▶ 무엇보다 여성권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초기에는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던 여성들의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반 설치와 조혼·공장제 폐지 등 악습을 없애는데 주력했어요. 낙후된 사회와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1930년대는 농촌계몽운동, 1950년대 이후엔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혼인신고운동과 축첩반대운동, 1960년대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여성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1970년대 가족법개정운동과 파출부 직업개발로 시작한 돌봄노동의 전문화를 꾀했지요. 1980년대 이후는 평화통일, 환경운동을 펼쳤어요. 특히 1970년대부터 가족법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끝에 1977년 수정된 가족법개정을 이루어냈어요. 이후 1990년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한국여성운동사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민혜원 ▶ 교육과 계몽을 통한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합니

다. 광주YWCA도 설립 이후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1923년 야학운영이었습니다. 1952년에는 호남여숙이란 야간 중학교를 개설했어요. 전쟁고아들을 모아 돌보는 성빈여사도 만들었고요. 생활개선운동으로 미용기술, 바느질 등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배출했습니다.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 의식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여성교육에 매진했지요.

조종남 ▶ 서울YWCA는 여성이 노동을 해도 대우를 받을 수 없던 시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966년 시간제가정부 훈련으로 돌봄사업을 시작했고 1977년 근로여성회관을 건립해 다양한 여성직종(도배사, 타일도장사, 세탁사 등)을 개발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수많은 저소득층 여성들을 직업의 길로 인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도운 게 가장 공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여성인권이 보장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YWCA가 큰 역할을 했지요.

서울YWCA는 우리나라 최초로 소비자상담실 개설, 파출부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운동과 돌봄운동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인지요?

조종남 ▶ 서울YWCA가 소비자운동과 돌봄운동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YWCA는 소비자단체이자 환경운동단체로 소비자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운동은 환경과 인권, 생명을 존중하는 착한 소비가 중요합니다. 서울YWCA는 윤리적 소비운동을 중심으로 소비자환경운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

정입니다. 돌봄운동은 돌봄회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운동과 돌봄사업을 제대로 된 유료사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WCA를 포함한 가사노동관련 단체들이 가사노동자의 인권보장,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YWCA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광주민중화운동의 산실이었던 광주YWCA는 최근 촛불정국이 남다른 텐데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민혜원 ▶ 1980년 군부독재정권이 총칼로 광주시민의 안위를 위협하던 상황에서 조아라 회장님과 이애신 총무님이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광주YWCA는 광주민중화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위협받을 때 광주YWCA와 여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이번 촛불민심의 뜨거운 열기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해졌으나 갈등과 분열의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념, 지역, 세대 등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YWCA 창립 당시는 일본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지만 세계 YWCA에 독립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의미를 짚어볼까요?

이명혜 ▶ 세계YWCA는 ‘일본YWCA 지회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한국YWCA 독립가입을 사실상 거부했어요. 하지만 우리 설립자들의 생각은 확고했고, 김필레 선생이 일본YWCA 총무를 만나 조선YWCA 독립창설을 인정해줄 것과 조선에서 세계YWCA에 가입신청서를 낼 경우 단독가입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활란 선생은 세계YWCA 임원회에 참석해 개척회원국으로 가입승인을 얻어냈지요. 세계YWCA에 독립적으로 가입한 것은 한국YWCA 설립자들의 소신이자 자존심입니다. 우리에게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 YWCA이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할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YWCA는 1938년 일본YWCA 산하로 들어가고 1941년 휴회합니다. 한 언론인은 “암매한 여성사회에 빛이 되고자 했던” 조선YWCA가 스스로도 암매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말 집요한 내선일체 공작에 그만 무릎 꿇은 것이다. 두고두고 한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명혜 ▶ 과거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YWCA 산하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유여부를 막론하고 창립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주체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자기성찰과 고백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만날 많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종남 ▶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버텨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서울YWCA는 그 후에도 야학(기청여학원)을 이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나라 국어책을 펴놓고 한글공부를 하다가 일본 형사가 오는 눈치가 보이면 일본 책만 내놓고 그들의 눈을 속였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말 공부와 기독교정신 교육을 했던 것이지요.

민혜원 ▶ 다들 같은 생각이네요. 외압에 의해 강제로 휴회를 당한 시대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목숨으로 하나님을 지켰던 믿음의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휴회를 해야 했던 시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더욱 강건한 마음으로 YWCA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도 다져야 합니다. 또한 힘이 약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상황이 다시 오지 않도록 YWCA의 힘과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95주년 주제가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명혜 ▶ 고백은 ‘Go Back’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告白하고, ‘Go 100’ 100주년을 향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

니다. 95주년을 맞아 YWCA는 회개와 성찰을 통한 겸허한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약한 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것, 신앙인으로서 시대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95주년 사업의 일환인 ‘평화비’ 건립은 역사적 고통을 기억하며, 시대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고백이자 다짐이기도 합니다.

YWCA 100주년을 향한 발걸음이 중요한 지금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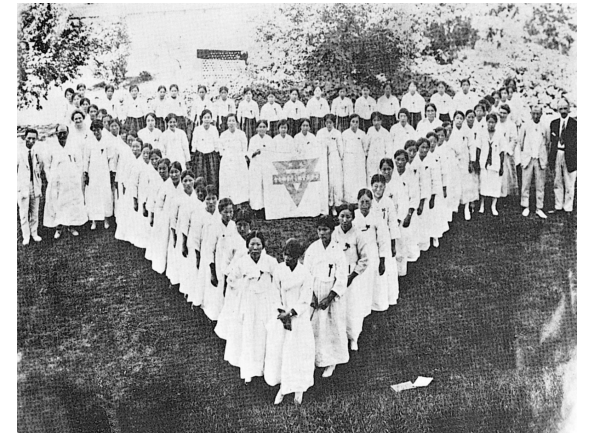
조종남 ▶ 아무리 9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YWCA를 창립한 목적에서 벗어나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1922년 초창기 선배들이 YWCA를 세웠을 때 초심으로, 젊은이와 여성을 창의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세우는 일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민혜원 ▶ YWCA가 95년 동안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온 게 ‘세상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엔 그 살림에 대한 영역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난 재난이 온 지구의 자연현상에 영향을 끼치고, 한 나라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 주변국과 관계를 온통 경색시키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YWCA는 앞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한 목표를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우리나라를 넘어 세상을 살리는 주체로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혜 ▶ YWCA 운동은 시대와 함께 갑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생명살림입니다. YWCA가 펼치는 탈핵운동, 다음세대를 살리는 청년청소년운동, 성평등운동, 그리고 평화운동은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95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조종남 ▶ 서울YWCA는 95주년 주제를 ‘Y 청년이 꿈꾸는 평화, W 여성이 꿈꾸는 평화, C 하나님이 꿈꾸는 평화, A 회원이 꿈꾸는 평화’로 정했습니다. 4~10월 청년평화리더십 캠프와 청년여성주의학교, 6월 YWCA 평화포럼(연합회, 광주YWCA 공동주관), 8월 북부지역 생명평화기행, 11월 여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여성95 평화를 말하다’ 라운드테이블



1922년 6월 13일부터 12일간 열린 제1회 조선YWCA 하령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평화걷기대회’를 여는데 많이 와주세요.

민혜원 ▶ 광주YWCA는 평화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아 통일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남북을 하나로 잇는 의미로 2018년 ‘지리산 평화기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주YWCA 두레산악회는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 고려인도 참여하고 민관합동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통일나무심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5월에 연합회, 서울YWCA와 평화포럼을 함께 개최하는데, 북한 여성들과 밀접히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포럼입니다.

YWCA의 변화과제는 무엇일까요?

민혜원 ▶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세대의 의식과 사고가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참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혜 ▶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간다면 시민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조종남 ▶ 세계YWCA에서 느낀 점은 회원들이 20~30대 초반에 ‘젊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YWCA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젊은 층과의 소통과 함께 그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No More 후쿠시마’ 햇빛과 바람으로 탈핵세상 열어가요!

김상은
한국YWCA연합회 간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사고 6주기(3월 11일)를 맞아 한국YWCA연합회는 3월 7일(화) 서울 명동 연합회 회관 앞에서 제150차 탈핵 캠페인을 열고 핵재앙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7개 회원YWCA(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서울, 청주, 하남)와 연합회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과 함께하는 탈핵이야기’ 주제의 문화공연으로 꾸며졌다.

‘광개토사물놀이 예술단’의 흥겨운 풍악으로 막을 올린 이날 캠페인은 명동을 지나는 국내외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평화생명운동에 전념해온 장 빈 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한영수 연합회 제1부회장의 여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핵 발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전과 생명, 다음세대 환경을 지키는 것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YWCA는 탈핵생명의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연과 사람,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 홍순관씨는 생명세상을 노래로 염원했다.


핵재앙에 대한 '망각'을 경계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인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한국YWCA연합회 탈핵생명위원)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김혜정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6년이 되는 오늘 일본 사회에서 목도한 현실은 ‘망각’이었다. 잊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어 “독일 사회의 탈핵을 가능케 했던 것은 체르노빌 사고를 잊지 않고 사회적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YWCA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 없이 탈핵 캠페인을 150회나 이어온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조종남 서울YWCA 회장과 정미경 청주YWCA 팀장은 지역에서도 계속 탈핵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힘을 실었다.

참석자들은 풍악과 함께 명동 일대를 20여분 행진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YWCA 회원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표현하는 햇빛과 바람개비, 핵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날개짓을 표현한 나비,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는 일

성1호기 인형, 핵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방진복 등으로 탈핵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탈핵세상을 함께 이루자고 호소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약속받으자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도 벌였다.

YWCA는 3월 11일(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의 ‘3.11 탈핵퍼레이드-나비행진’에도 12개 회원YWCA(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서울, 안양, 의정부, 청주, 파주, 하남)와 연합회, 청년기자단에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탈핵의 공감대를 넓혔다.

YWCA는 2014년부터 탈핵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하고, 전국 52개 YWCA가 매주 화요일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건설반대를 외치며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열어왔다. 2015년엔 ‘고리1호기 폐쇄 서명운동’을 벌여 전국에서 10만명 서명을 받아 폐쇄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명혜 회장이 제150차 탈핵캠페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YWCA 회원들이 탈핵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개토사물놀이 예술단의 흥겨운 풍악 공연



캠페인 참여자들이 명동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3.11탈핵퍼레이드-나비행진에 참석한 어린이 회원



YWCA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3.11탈핵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40여개 회원YWCA 동시다발 탈핵캠페인

탈핵운동에 앞장서온 YWCA가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사고 6주기를 맞아 3월 둘째 주를 'No More 후쿠시마' 탈핵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YWCA연합회와 7개 회원YWCA(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서울, 청주, 하남)가 함께한 서울 캠페인을 비롯해 40여개 회원YWCA에서 동시다발로 탈핵캠페인을 전개했다. 전국 캠페인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거제YWCA 고현시내사거리



광주YWCA 금남로 중앙우체국



군산직할지부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앞



김해YWCA 장신대앞 사거리



수원YWCA 복수원홈플러스앞



안산YWCA 안산법원앞



안양YWCA 안양역



남양주YWCA 평내전철역



남원YWCA 시청앞



논산YWCA 백제병원사거리



양산YWCA 구터미널



여수YWCA 부영3단지사거리



울산YWCA 롯데호텔앞



대구YWCA 대구백화점 광장



대전YWCA 대전YWCA회관앞



동해YWCA 동해시평생학습관



원주YWCA 원일로 농협앞



의정부YWCA 의정부시 중앙로



익산YWCA 원대병원 건너편



목포YWCA 장미의 거리



부산YWCA 서면 주디스타화



부천YWCA 탈핵부천도보순례



인천YWCA 신세계백화점앞



제천YWCA 치없는 거리



전주YWCA 전주KT사거리



사천YWCA 삼천포 중앙시장



서귀포YWCA 올레매일시장 입구



서울YWCA 한국YWCA연합회관앞



진주YWCA 경상대학교앞



창원·마산·진해YWCA 창원마산진해일대 행진



청주YWCA 성안길



서천YWCA 여성문화센터



성남YWCA 아탑역광장



속초YWCA 황소동상



충주YWCA 롯데마트앞



동명YWCA 충무데파트앞



파주YWCA 금촌역 광장

“무관심이 폭력이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평화비’ 모금

한국YWCA 참가단



YWCA가 청년대표를 포함한 8명의 참가단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파견하고, ‘전시성폭력’ 주제발표, ‘평화비’ 모금캠페인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벌였다. 한국YWCA 연합회는 3월 11일(토)부터 3월 17일(금)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참여했다.


청년대표 문윤희(안양YWCA)·손지수(대구YWCA)·이보람(안산YWCA)·임희진(서울YWCA)과 실무활동가 김은영(연합회 간사), 연합회 실행위원 김은경(성평등위원장)·장미란(평화·통일위원장)·한미미(국제협력위원장, 세계YWCA 부회장)로 5명이 30세 미만이다.

YWCA 청년들은 청년주도 정책제안 프로그램인 ‘CSW 61 청년포럼’을 비롯해 정부간 회의와 NGO회의에 참여했다. 특히 3월 16일(목)에 “무관심이 폭력이다”(Ignorance is Violence)이란 주제로 전시성폭력 근절을 호소하며, YWCA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평화비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한국YWCA는 이번에 모금한 국제성금을 시작으로 일본

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고 전시성폭력에 반대하는 평화비 건립운동을 전국 52개 YWCA와 함께 전개한다.

또한, YWCA 참가단은 유엔 안토니오 구헤흐스 신임 사무총장 정책특보로 발탁된 한국인 강경화씨를 면담했다. 강경화씨는 2013년 한국YWCA가 주관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특별상을 받은 바 있다. YWCA 참가단은 한국인들이 주도해 1978년 결성한 뉴욕 퀸즈YWCA도 방문했다. 3월 14일(화)엔 네팔, 미얀마, 일본, 홍콩 등 아시아 YWCA 참가자들과 모임을 갖고 교류를 나눴다.

지난해 7월 유엔NGO위원회로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정분야 협의지위를 승인받은 한국YWCA는 각종 유엔 국제회의에 정식대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면의견서와 구두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 CSW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해마다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 NGO들이 모여 성평등과 여성권리 발전을 위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이다. 



6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유스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임희진, 이보람 청년(왼쪽부터)



평화비 모금에 동참하는 각국 청년들



참가자들이 각 나라말로 캠페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문윤희 청년이 평화비 모금을 위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특보와 'RISE' 캠페인을 하는 청년들



아시아YWCA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평화비 건립을 위한 모금발표에 참석한 주 유엔 핀란드 대사(왼쪽)와 호주 대사



평화비 건립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한국YWCA를 응원하고 있다.

소통 말고 뭣이 중헌디? '프로 소통러' 대통령을 원해요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간사

2016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촛불'로 시작해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격변기를 지나왔다. 월간 <한국YWCA>는 2017 대선을 맞아 Y-틴 청소년 회원들과 대학·청년Y 회원들(이하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사회 주요 과제와 방향, 지도자상을 살펴봤다. 3월 19일(일)부터 20일(월)까지 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대선, 시대정신과 리더십, 청년정책 등에 대한 30개 항목을 물었다. 150명이 응답했다.

우리 미래는 '희망'이다

지금 대한민국 광장은 뜨겁지만, 청년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차갑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YWCA 청년들도 그렇다. 예상은 빛나갔다. 응답한 YWCA 청년 87%가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기대했다.

월간 <한국YWCA>가 지난해 7·8월호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80.6%보다 더 높아졌다.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4%였다. 그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해 조사에서 청년들은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있어서" "YWCA처럼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을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다.

YWCA 청년들도 '일자리'가 걱정

희망적인 YWCA 청년들에게도 취업은 가장 큰 고민이었

다.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를 묻자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일자리)'을 1순위(55.7%)로 꼽았다. '친구, 동료 등 인간관계', '불안정한 시국', '연애와 결혼'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취업이 어려워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면서 청년들은 '관계'를 먼저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YWCA 청년들에게도 진로와 취업, 일자리 확대와 노동문제는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꼽혔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하고 싶은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좋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실현'이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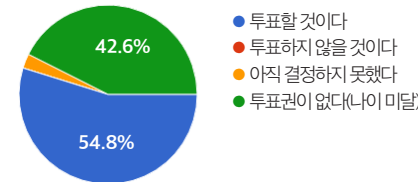
투표, 세상을 바꾸는 물방울

2017 대선 참여에 대해 YWCA 청년들은 93%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투표권이 있다면'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Y-틴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다. '투표참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8%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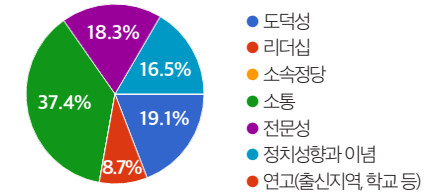
을 만들듯 청년들은 '투표'로 희망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 문재인(34.8%), 이재명(22.6%), 안철수(18.3%), 안희정(9.6%), 심상정(6.1%) 등의 순서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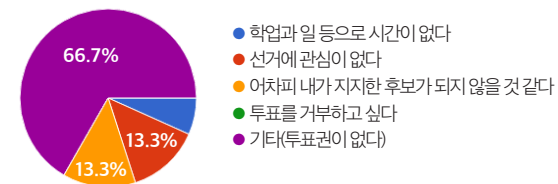
● 투표에 참여할 예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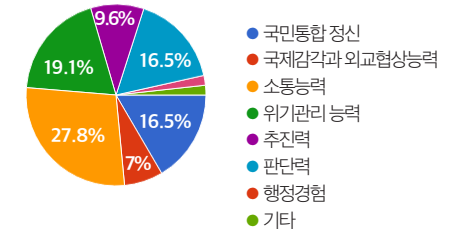
●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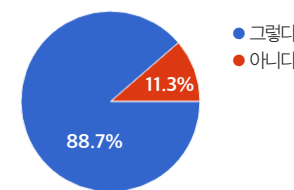
● 투표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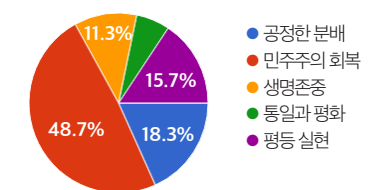
●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 투표참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차기 대통령의 시대정신



차기 대통령의 조건, 소통과 도덕성

YWCA 청년들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기준'으로 '소통'(37.4%)과 '도덕성'(19.1%)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에서도 1위는 '소통능력'(27.8%), 다음은 '위기관리 능력'(19.1%)이었다. 청년들은 귀 막고 눈 감은 '프로 불통러'가 아닌 '프로 소통러'가 차기 대통령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청년들 다수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73.9%)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투표 참여'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정당보다 '사람'을 보고 뽑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밥 한끼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누구와 하고 싶은지 물었

시대정신은 '민주주의 회복'

YWCA 청년들도 '차기 대통령의 시대정신'에 대해 압도적으로 '민주주의 회복'(48.7%)을 꼽았다. 다음으로 '평등 실현'(15.7%), '공정한 분배'(18.3%), '생명존중'(11.3%)의 순이었다. 자신들이 바라는 사회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37.4%), '세대간, 지역간, 성별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20%)를 가장 높게 꼽았다. 청년들은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사회,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진정한 노력의 가치를 얻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주영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뜨겁던 광장에도 어느덧 봄이 왔다. 따뜻한 바람이 기운을 북돋아 주던 3월 8일(수) 2017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33회 한국여성대회 현장을 찾았다.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를!!

'세계 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여성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꺾기한 날을 기념해 생겼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빵'은 생존권, '장미'는 참정권을 뜻했다.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여성들의 외침은 계속되었지만, 성평등한 민주주의의 길은 여전히 멀다.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모습은 어떠한가. 여성에 대한 가부

장적인 인식과 여성혐오는 여성비하와 멸시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의 극단을 달리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여성들은 저임금 노동력으로, 폭력의 대상으로서 동등한 주권자이기보다는 '주류'의 남성에게 부차적인 객체가 되고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이 후퇴하고 있는 한국에서 여성들은 더욱더 불안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2016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44개국 중 116위로 꼴찌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통계를 발표한 이래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에서

36.5%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30대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여성노인 빈곤율, 여성비정규직 규모, 여성폭력 피해 빈도 등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디지털 성범죄' 아웃과 3만5천개 '포스트잇'

그럼에도 '빵과 장미'의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올해 한국여성대회는 모든 여성이 동등한 주권자로 대우받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자리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성평등 디딤돌', 성평등 실현을 저해한 개인이나 단체는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해 성평등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국가 실현의지를 확인하는 정책 토크쇼 '성평등 마이크'는 다양한 정책과 법안의 실현으로 남녀 모두 성평등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사드배치철폐 성주투쟁위원회 여성위원회와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도 무고죄로 기소된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낸 차진숙씨,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에 맞선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가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았다.


특히 올해 여성운동상은 '디지털성폭력' 이슈화로 법제도 개선과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Digital Sexual Crime Out D·S·O) 프로젝트'에 돌아갔다. 1999년부터 17년간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어온 소라넷 폐쇄를 위해 10여 명이 시작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는 디지털 성범죄 실상을 통계로 공유하고 범죄모의 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SNS로 확산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면서 사회문제로 각인시켰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활동은 경찰과 국회를 움직였고, 지난해 여름 1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소라넷'을 폐쇄하는데 기여했다.

특별상은 '강남여성 살해사건' 이후 3만5천여 개의 포스트잇을 써내려간 여성들이 받았다.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살해된 20대 여성의 죽음에 '대한민국 사회'라는 공범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인 포스티잇. 추모와 울분을 넘어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여성혐오와 여성차별, 여성억압을 드러내며 성평등한 사회만이 여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외침이 사회공론으로 확산되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유권자 행동'에 나서자

이날 한국여성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주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한 '성평등 마이크' 행사였다. 대선주자들은 10분 동안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성평등 정책을 설명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후보 모두 '성평등 실현'을 외쳤다. 집권하면 남녀동수 내각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내 단계적으로 내각의 여성비율을 50%대로 끌어올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민주주의는 광장이나 토론장의 구호에만 머물 게 아니라 여성이 서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여성들은 온전한 삶의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 주체이다.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권을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이번 대선에서 성평등 의제를 확산하고, 민주주의와 여성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권자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성평등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 실현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 그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를 통한 유권자운동은 젠더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 주체로서, 정치 주체로서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사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디딤돌상을 받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

대통령 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편집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들의 '촛불민주주의'가 이루어낸 성과다. YWCA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의 의미와 이번 대선의 과제를 살펴보는 특강을 마련했다. 다음은 3월 16 일(목) 오전 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에 초청된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강연 요약이다.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조기 대선과 한국사회 변화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승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최종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국민의 뜻을 존중한 결과로 국민의 승리이며 역사적, 세계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헌법절차에 따른 대통령 퇴진은 이념, 계층, 세대를 넘어선 국민적 합의인 이른바 '평화적 시민혁명'이었다.

'촛불 민심'의 승리는 우리나라 국민의 민주주의 성숙함을 보여준 장면이지만 그 한계도 명백하다. 실상은 대통령 한 명만 물러났을 뿐이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전히 불가고 정부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 시민혁명으로 불리지만 실제적으로는 혁명이 아닌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뤄졌다. 평화적으로 탄핵을 이루어냈지만 변화의 내용과 폭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19대 대통령 선거의 기본과제는 정권교체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자유한국

당이 반대하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4당간 합의가 없으면 개혁입법 중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조기 대선의 과제

이번 대선에서 변화된 세상과 새로운 비전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지만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벽들이 산재한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변화하고, 개혁시킬 수 있는지가 앞으로 주어진 과제다. 먼저 19대 대선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보수정당의 붕괴가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보수정당은 의미 있는 후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둘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의 다자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셋째, 보수정당의 붕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중도보수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층이 무너져 '판단의 기로에 선 중도보수층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와 '그들의 차선의 선택은 무엇인가'가 판을 흔드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각각 어디로 이동할지도 본선에 이르는 단계부터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넷째, 보수정당이 무너진 상태에서 야당 후보끼리의 대결 가능성은 더 좋은 정권교체를 선택하는 선거로 작용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정권교체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섯째, '반문연대'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개헌과 '반문연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명분과 내용 없이 문재인 후보의 독재를 막기 위해 날짜만 맞박은 졸속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를 둘러싼 위기환경

지난 10년의 적폐청산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새 정부는 시작부터가 고난일 것이다. 탄핵이란 특수한 환경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경우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다. 당선되는 순간 임기가 시작돼 바로 다음날 내각을 구성해 발표해야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 불을 꺼야 할 긴급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현재 한반도 긴장 문제는 아슬아슬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초강수대 북정책과 북한의 물러서지 않는 기조, 한국 정부의 부추기기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사드문제 해결이 어렵다. 국가간 협정이 체결된 것이어서 뒤집기는 힘들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휘말려 중국에게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있으며, 사드기지를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기지 건설은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요소가 되었다. 일단 대결상황을 중단하고, 협상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사드철회가 가능한

가. 많은 문제들이 미국 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중국, 북한과의 전반적인 외교관계 속에서 '패키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한반도 환경자체를 바꿔야 하는 과업이라 많은 시간과 복잡한 과정이 걸릴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한계, 악순환을 넘어선 갈등과 통합의 딜레마, 경제 위기 등의 우려를 들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구조적인 벽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연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며, 갈등과 통합의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것이 숙제다. 또 4,5월에 당장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은 분명하다. 언급된 한반도 위기 문제와 맞물렸을 때 진짜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경제위기로 가지 않게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정치와 시민사회 역할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무엇을 바꿀 것인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겠지만, 여전히 쉬운 환경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어 변혁을 꾀어야 한다. 정치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 목소리가 채워주고 이끌어야 한다. 당면한 재벌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선거구제 개편, 검찰개혁, 불평등 사회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입법을 우선과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위험사회 구조개혁 과제 중 지진위험지역 원전가동 중단,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강화 입법이 시급하다. 탈핵운동도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전개를 맞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평화통일 운동은 앞으로 몇 년간 절박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쟁위험으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에 불을 끄고 평화쪽으로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중요한 역사의 고비이자 방점을 찍는 시기여야 할 것이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YWCA가 되어야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원로에게 듣는다’

이번 호에서는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을 이명자 전주YWCA 사무총장이 만났다.



홍기자 전주YWCA 명예이사 약력

- 1971~1993 전주YWCA 이사, 총무, 부회장
- 1990~1993, 1998~2000 전주YWCA 회장
- 1994~1997, 2003~2009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 2013~2014 YWCA증경회장모임 회장
- 2009~2016.1 한국YWCA연합회 공천위원
- 2016. 8. 23 YWCA공로상 ‘문태임상’ 수상

‘고리1호기’ 폐쇄결정 가장 기억에 남아

YWCA와 어떻게 만남이 시작되었는지요.

“결혼 전 광주에서 자라고 활동하면서 YWCA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결혼 후 1970년대 초 남편이 직장을 전주로 옮겨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전주에서 살고 있어요. 전주에 오자마자 YWCA합창단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YWCA 이사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YWCA 활동에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당당하게 건축모금을 해서 전주YWCA 회관과 어린이집을 신축했던 일,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현장에 나가 새까만 기름을 닦아냈던 일, 어느 해 초가을 태풍으로 들녘 벼가 다 쓰러졌을 때 전주 YWCA 이사들이 허리 굽혀 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일 등 탁상공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 나가 실천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지요. 무엇보다 매 주 화요일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전개해서 2015년 ‘고리1호기’ 폐쇄결정을 이끌어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닥쳤을 때 YWCA 회관에 ‘IMF침타’를 개설했습니다. 이때 감동스런 일화도 많았을 듯한데요.

“제 주변에도 하루아침에 사업장 문을 닫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피해 당사자였어요.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게 YWCA 정신이자 역할이기에 10평 남짓한 공간에 쉼터를 마련했어요. TV와 자판기 등 편의시설을 비치하고 실직자들이 서로 의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했어요. 작은 정성이었으나 쉼터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고난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YWCA 자원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YWCA라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참여했어요. 1970년대 연합회에서 근로여성, 도시 저소득층 여성 인권보호와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요. 이때 YWCA에 대한 주인의식이 뿌리내렸다고 생각합니다. YWCA가 펼치는 회원운동,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가족법 개정운동, 평화운동 등 현장에서 YWCA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뛰었습니다. 이 모든 원동력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잠언 16:3)는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YWCA와 사람이 좋아서 했던 일이 실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 왔던 거예요.”

내 인생의 자랑은 YWCA

전주YWCA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전주YWCA는 여성, 어린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약자 등 모든 계층을 초월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운동을 펼치고 소유와 나눔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와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주YWCA에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 돌봄운동’을 YWCA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70세 후반까지 살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2016년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문태임상’을 받은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다른 수상자들과 웃고 있다.

YWCA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큰 깨달음을 YWCA에서 얻었습니다. 후배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 이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확실한 사명감으로 최선의 열매를 위한 수고를 기쁨과 보람으로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YWCA에서 본받고 싶은 지도력은 어떤 분이었는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감동 받고 존경한 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제가 YWCA를 지금까지 떠나지 못한 이유도 그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들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선배님들을 존경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YWCA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의의 평화 생명 가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YWCA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의’를 보고 그것을 ‘불의’라고 용감히 말할 수 있는 YWCA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사일런스> 순교와 배교-믿음과 불신의 사이

이경순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 미디어비평가



영화 <Silence> 2016

감독 마틴 스코세지

출연 앤드류 가필드(로드리게스 신부)
리암 니슨(페레이라 신부)
아담 드라이버(가르페)

장르 드라마(159분)

제작국 이탈리아, 멕시코, 미국



원작 앤도 슈사쿠의 <침묵>

일본 여행길에 운젠(雲仙)화산 지옥온천을 보러갔을 때 펄펄 끓는 열탕이 솟구치는 곳에서 가톨릭 순교성지라는 팻말을 보고 크게 놀란 일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지배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가톨릭 금지령을 내렸고, 배교(背敎)하지 않는 신자들을 펄펄 끓는 열탕에 던져 죽였다는 설명이 쓰여 있다. 영화 <사일런스>는 일본에 들어와 가톨릭 포교활동을 한 신부들과 가톨릭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며 나무기둥에 묶어놓고 끓는 온천수를 끼얹는 참혹한 고문을 가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7세기 일본 막부시대 가톨릭 탄압

이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 <침묵>을 쓴 작가 앤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1996)는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탄생> <사해의 언저리> <예수의 생애> 등 그리스도교를 소재로 한 소설을 많이 썼다. 그리스도교가 단순히 하나의 소재가 된 게 아니라 그의 문학의 핵심을 이룰 정도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 <침묵>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서양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면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으로 17세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막부 시절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잠시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포르투갈 가톨릭 예수회는 일본으로 파견한 페레이라 신부가 실종되었고, 배교했다는 소문을 접한다.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인 로드리게스와 가르페 신부는 스승의 배교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교회 만류를 뿌리치고 스승을 찾으러 일본으로 위험한 길을 떠난다.

두 신부는 천신만고 끝에 감시의 눈길을 피해 깊은 산 속에 숨어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기리시탄(일본에서 그리스도교나 신자를 가리키는 말) 마을에 도착하지만 곧 발각되고 만다. 신부와 기리시탄 마을의 신자들은 배교의 증거로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으라는 강요를 받는데, 가르페 신부는 배교를 거부하고 죽어가는 신자를 구하려다 순교한다.

배교의 상징 "밟아라, 괜찮다"

로드리게스 신부가 완강하게 배교를 거절하자 일본 관리들은 그가 반드시 배교를 하도록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자들에게 참혹한 고문을 가한다. 로드리게스는 저들을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침묵하는 신에 대해 종교적 신념이 흔들릴 만큼 괴로워한다. 이때 배교를 하고 일본인이 되어 살고 있는 페레이라 신부가 찾아와 자신도 고통당하는 신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배교를 택했노라며 “만약 그리스도가 여기 계셨다면 고통 받는 저들을 위해 분명히 배교 하셨을 것이네.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라고 설득한다.

고문에 지쳐 죽어가는 신자들의 신음소리를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어 갈등하는 그의 앞에 배교를 종용하는 성화 동판이 놓이고, 절규하듯 간구하는 그의 귀에 “밟아라, 괜찮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린다.

비록 자기 대신 고문당하는 신자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 해도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배교자가 된 로드리게스는 이후 그의 스승 페레이라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 이름으로 일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일본 관리가 되어 살아간다. 마침내 그가 죽고 일본 전통 불교식 장례가 치러지던 날, 그의 아내는 그가 여생 동안 몰래 간직했던 작은 나무 십자가를 그의 손에 놓아준다.

흔들리는 믿음, 굳건한 믿음

결로 나타난 것만 보면 로드리게스 신부는 스스로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다른 이들의 고통스런 신음을 못 들은 채 할 수 없어 죽도록 괴로워할 때 들려온 “괜찮다”는 음성이 과연 환청이었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가톨릭 신부의 삶과는 가당치도 않은 세속적인 일본 사람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은 로드리게스를 하나님은 “괜찮다”고 따뜻하게 맞아주시지는 않았을까.

이 영화에는 순교와 배교-믿음과 불신의 사이에서 죽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 바닷물에 익사하는 순교자들

록 괴로워했던 로드리게스 신부 외에도 흥미로운 인물이 두 사람 있다. 두 신부가 일본으로 향할 때 마카오에서 만난 일본 사람 기치지로는 온 가족이 기리시탄으로서 배교를 거부하고 화형을 당할 때 혼자만 살기 위해 배교를 하고 도망친 남자다. 그는 신부들의 길잡이로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러 번 배교를 거듭하고, 그 후에는 또 번번이 신부를 찾아와 고해성사를 받아달라고 떼를 쓰는 인물로서 흔들리기 쉬운 얇은 믿음을 가진 나 자신을 보는 듯하다.

배교자 기치지호와 대조되는 인물로 기리시탄 마을의 모기치가 있다. 그는 붙잡혀서 배교를 거부한 죄로 바닷가 갯벌에 박은 나무기둥에 묶여 밀물이 들어올 때마다 바닷물에 잠기는 형벌을 당하는데 나흘 만에 숨이 멎을 때까지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다. 로드리게스 신부가 여생 동안 몰래 간직했던 작은 십자가도 그가 기리시탄 마을에서 숨어살 때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든 유일한 성물이었다.

그 자신도 가톨릭 신자로서 “내 최종목표는 <침묵>을 영화로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던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소설 <침묵> 영문판(2007)에 쓴 서문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믿음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믿음을 풍성하게 한다.

의심에서 촉발된 외로움을 통해 영적 교감을 얻는

그 고통스러운 역설의 길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월례아침기도회



3월 월례아침기도회가 3월 2일(목) 오전 8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임향자 목사(하늘꿈학교 교장)가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요한복음 12장 24절)라는 제목으로 탈북청소년 기독교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교육경험과 평화통일 비전을 나눴다.

지역위원장 연수



지역위원장 역할 이해와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YWCA 지역위원장 연수가 3월 2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2월 YWCA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성아 경기지역위원장(수원YWCA 회장), 조종남 북부지역위원장(서울YWCA 회장), 지옥정중부지역위원장(청주YWCA 회장), 강선임 서부지역위원장(순천YWCA 회장), 유영은 동부지역위원장(대구YWCA 회장)이 참석했다.

굿모닝미인카드 기금 전달식

YWCA와 농협이 함께하는 '굿모닝 미인카드' 기금 전달식을 3월 2일(목) 연



합회 강당에서 진행했다. 농협은 11년째 회원YWCA 법인카드와 개인들이 사용한 '굿모닝 미인카드' 금액의 적립분을 YWCA에 후원하고 있다. 2016년 기금은 1억1940만원으로 지도력 교육 등에 쓰일 예정이다.

12번째 '핑크머니' 지원협약



YWCA와 한국씨티은행의 청소년금융교육 '핑크머니' 지원협약이 3월 14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2006년부터 시작된 두 기관의 협약은 이번에 열두 번째를 맞았다. 씨티재단(Citi Foundation) 후원을 받아 한국씨티은행(박진희 행장)이 YWCA(이명혜 연합회 회장)에 후원금 4억6백여만원(35만 달러)을 전달했다. 올해 전국 35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핑크머니'가 운영되고, 80개 학교와 협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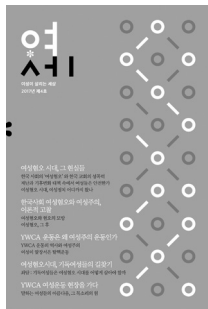
기독교성주의 연구모임

생명비전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차 YWCA 기독교성주의 연구모임이 2월



14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숙진 한국여성신학회 회장(Y아카데미 위원)이 '기독교인들에게 왜 여성주의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대학·청년Y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론지 <여·세> 4호 발간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혐오'를 주제로 정론지 <여·세> 4호를 펴냈다. 여성혐오의 본질을 조망하고, 사회와 교회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기독교여성들의 극복방안을 모색했다. 생명비전연구소를 통해 전화(031-313-9315)나 이메일(ywcapr@hanmail.net)로 신청할 수 있다. 가격은 1만원이다.

청년기자단 정기모임

제2기 청년기자단 Y-ON 3차 정기모임이 3월 11일(토) 연합회에서 열렸다. 2월 활동나눔과 3월 콘텐츠를 기획하고 '3.11 탈핵퍼레이드 나비행진'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청년기자단 콘텐츠

는 YWCA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YWCA 1922 장학금' 신설

한국YWCA연합회가 1922년 설립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YWCA 1922 장학금'을 신설했다. YWCA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1,922명으로부터 연 1만원씩 후원받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Y-틴, 대학·청년Y 중앙임원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생명숲돌봄센터 개소



한국YWCA연합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월 27일(월)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에 생명숲돌봄센터를 열었다. 마을회관을 개조해 만든 순천센터는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3세~10세 미만)의 야간보육, 교육과 함께 아동복지와 학부모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개소로

YWCA는 총 10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정기총회



2017년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2월 22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2016년 사업추진 결과보고, 운영규정 개정, 임원선출,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한국YMCA전국연맹으로 사무국이 이관되었다. YWCA는 2014년부터 사무국을 맡았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 가입

YWCA가 청소년금융교육 핑크머니의 발전방향 모색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위해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 가입한다. 3월 24일(금) 출범하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지원법을 토대로 설립되는 법적기구로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이다. 한국소비자원, 전국은행

연합회, 한국YMCA, 한국교육방송 등 18개 기관이 가입했다.

등정

이명혜 연합회 회장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제7대 회장 선임(2017.2.23.~2019.2.22)
하선규 부산YWCA 전 회장
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대사 위촉(2017~2018)

지정기부

서희전·홍인숙 연합회 위원
연변지원 500만원
민들레교류협회 실무자 지원(월 2만원):
김경희, 김영자, 백혜진, 원영희, 유성희, 이명혜, 이은영, 이종임, 장미란, 차경애, 최형선, 한미미, 한영수, 함희경, 연합회 직원회

인사

사직
조영미 부장(지역운동국) 2017.2.28
채용
김선경 간사(Y아카데미위원회) 2017.3.1
부서이동
정서연 간사(총무팀) 2017.3.1.
이기원 간사(홍보출판팀) 2017.3.1
휴직
홍수진 간사(협력사업팀) 2017.3.1
김수연 간사(Y아카데미위원회) 2017.3.13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7. 2. 1~2. 24)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1~2.28)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예린, 곽지영, 구정혜, 권순복, 권인택, 권 진, 김경숙, 김경희, 김귀옥,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정,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정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진용,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숙, 민선영, 박보람, 박미선, 박영숙, 박용옥, 박은실, 박인희, 박진화, 박호정, 배유미, 배정미, 백혜진,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현진, 이혜린, 이희정, 임강숙, 임진영, 임향숙,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조성애, 조영미, 조은희, 조인식, 최수신,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1,746,000
회원YWCA	서울YWCA	383,900
개인기부	배영자, 오경선	87,930
협력교회	약전평강교회, 기본소식교회	130,000
기관, 단체	르뱅(명동성당점), 명성약국, 예씨레 젤라또(명동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117,300
	합계	2,465,130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이 2월 20일(월)부터 3월 2일(목)까지 총 60시간 진행되었다. 산모 신체회복 지원과 신생아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이론교육과 신생아 인공수유, 모유수유, 목욕과 케어 등을 실습했다.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게 된다.

동해YWCA

전민지 간사

한국세무사회와 업무 협약



동해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한국세무사회는 2월 20일(월) 한국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술훈련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 취업연계 활동을 하게 된다. 지역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대학청년동아리 그린Y, 에너지시민연대 감사패 수상



서울YWCA 대학청년동아리 기후·에너지리포터스 그린Y가 기후·환경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한 공로로 2월 23일(목) 에너지시민연대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그린Y는 청소년 대상의 1:1 맞춤형교육과 멘토링을 비롯해 기후·에너지 시민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회장 이·취임식



속초YWCA는 2월 22일(수) 제14대, 15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제14대 이행재 회장 이임사와 제15대 이리자 회장 취임사 낭독, 전일영 목사(속초 하늘땅교회) 설교 등이 이어졌다. 속초시장, 속초시의회 의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했다.

인천YWCA

김화연 간사

살림돌보미 교육



2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살림돌보미 교육을 진행했다. 정리수납, 유용한 미생물 EM, 살림돌보미 이론과 서비스 매너, 직업의식 등을 교육했다. 총 19명이 수료했으며 11명은 살림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YWCA는 지속적인 교육과 회원관리로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여성안심택배 협약식



고양YWCA는 2월 22일(수) 고양시, 롯데아울렛 원흥점과 함께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안전사업 일환인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는 1인가구 증가와 안전수요 증대에 따른 택배수령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되었다. 2016년 2개소 개설에 이어 이번에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원흥역에 추가로 무인안심택

배함을 설치했다. 고양YWCA는 운영전반 업무와 사업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돌보미 자치회 정기총회



수원YWCA 돌보미 자치회가 2월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 3회에 걸쳐 정기총회를 열었다. 21일 산모돌보미 자치회, 25일 살림·육아돌보미 자치회, 간병돌보미 자치회가 총회를 열고 2016년 사업·회계보고, 2017년 사업계획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회원 18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핵발전소반대 100만 서명운동



2월 28일(화) 안양시 범계 로데오거리에서 핵발전소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며 탈핵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사, 위원, 실무자들이 시민들에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규핵발전소 건설반대 서명을 받았다. 안양YWCA는 지속적인 탈핵캠페인으로 탈핵운동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의정부YWCA

정진아 팀장

어린이 환경봉사 '따봉'



의정부YWCA는 2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어린이 환경 봉사 '따봉'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13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에너지와 환경, 탈핵에 대해 알아보고 에너지 절약 동영상 만들기,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또 양말공예를 통해 자원재활용의 즐거움을 배웠다.

평택YWCA

정혜근 간사

키다리학교 일본군 '위안부' 체험부스



평택YWCA 키다리학교는 3월 1일(수) 평택청소년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평택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아보는 사다리퀴즈,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꽃팔찌 만들기 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위안부' 문제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중부

대전YWCA

이다정 간사

파이로프로세싱의 허와 실 국제세미나



대전YWCA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2월 28일(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국제세미나 "파이로프로세싱의 허와 실"을 열었다.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의 사회와 프랭크 반히펠 교수(미국 프린스턴대), 강정민 선임연구위원(미국천연자원보호위원회 원자력분과), 마사히로 타쿠보(일본 핵정책 전문가), 한병섭 박사(원자력공학박사)의 강연,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15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YWCA

김정현 간사

이사·직원 연수



세종YWCA 이사·직원들은 2월 24일(금) 장군면 바다니썬터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YWCA 운동과 역사를 배우고 경영자 이드라인에 따른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회원 화합프로그램



회원화합 프로그램으로 정월대보름맞이 율놀이를 진행했다. 2월 9일(목)에는 제천YWCA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2월 23일(목)에는 살림돌보미 회원이 율놀이를 했다.

천안YWCA

정상란 팀장

전통장 담그기



천안YWCA는 자연먹거리 소비자운동으로 2월 20일(월) 전통장 담그기 시연회를 열고, 회원들과 함께 장 담그기를 진행했다. 50일 뒤에는 전통장 가르기(간장뜨기, 된장뜨기)를 진행한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생태여성주의' 이사·위원 연구모임

청주YWCA는 '생태여성주의'를 주제로 2월 23일(목)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이사·위원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생태여성주의 이해, 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돌봄노동을 배우며 운동 방향을 모색했다. 57명이 참석했다.



충주YWCA

김세희 팀장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소통과 화합을 위한 충주YWCA 체육대회가 3월 1일(수) 충주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체육대회와 삼겹살 파티로 진행했다. 이사·위원, 본부, 부속시설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화장이·취임식



회원YWCA 소식 3월

광양YWCA 회장 이·취임식이 2월 16일(목) 진행되었다. 제8대 장화섭 회장 이임사 낭독과 공로상 전달, 제9대 김양임 회장 취임사 낭독을 진행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두레산악회 신입대원 훈련



광주YWCA 성인클럽 두레산악회 임원과 신입대원 훈련이 2월 27일(월) 강당에서 열렸다. YWCA 목적이해, 임원역할 교육으로 YWCA 회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다. 두레산악회는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YWCA 여성산악회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Y-틴 2명 '고의순나눔기금' 장학금 수여



남원YWCA Y-틴 회원 2명이 2017년 '고의순나눔기금' 장학금 선정자로 선발되어 한국YWCA연합회에서 열린 '고의순나눔기금 장학금' 수여식에 2월 21일(화) 참석했다. '고의순나

눔기금'은 지난해 별세한 고의순 은학의집 운영위원 유족이 YWCA 활동에 헌신한 고인 뜻을 받들어 기부한 장학금이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



목포YWCA 돌봄서비스사업단은 3월 14일(화)부터 23일(목)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신규자와 경력자 교육을 진행했다. 건강관리사 역할, 산후조리방법,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자세 등을 신규자는 60시간, 경력자는 40시간 교육했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제17차 촛불집회 참석



2월 25일(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신속한 탄핵', '특검수사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여수YWCA는 매주 토요일마다 여수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행사 진행요원과 차(커피, 녹차)봉사로 참여해왔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청소년 장학증서 전달



전주YWCA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월 4일(수), 2월 10일(금) 청소년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300만원 상당 학원비 장학증서는 공전요리제과제빵미용학원(원장 김정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3명에게 전달했으며, 3년간 학원수강비 1,400만원 장학증서는 파인디미술학원(원장 최락환) 후원으로 위기청소년 1명에게 전달했다.

제주YWCA

이유리 간사

YWCA 양지회 장학금 전달



제주YWCA 사회복지법인 YWCA 양지회(이사장 강난파)는 2월 13일(월) 청소년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6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총 28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YWCA 양지회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6명의 중·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부

거제YWCA

장미숙 간사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거제YWCA는 거제 26개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연대한 탈핵 거제시민행동과 함께 2월 16일(목) 아주동 대우조선소 앞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서명운동은 대선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스타트'



김해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자신의 적성과 성향을 파악하고, 취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 준비프로그램인 '취업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스타트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무료 프로그램으로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기씩 총 18기 과정을 진행한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학교밖 청소년 무료건강검진 홍보



대구YWCA가 운영하는 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월 13일(월)부터 2월17일(금)까지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홍보했다. 꿈드림은 학교밖청소년의 무료 건강검진과 함께 심리정서, 진학진로 상담, 학습 멘토링,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탈핵 차량행진



마산YWCA와 경남지역 2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탈핵경남 시민행동은 2월 1일(수), 15일(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신고리 5·6호기 승인 백지화를 위한 탈핵 차량행진'을 진행했다. 차량 10여대로 창원 일대를 돌면서 탈핵의 중요성을 알렸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매달 2회씩 탈핵 차량행진을 펼치고 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삼천포 새시장에서 탈핵캠페인



사천YWCA는 2월 14일(화) 삼천포 새시장 일대에서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노후 핵발전소 폐쇄 촉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등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양산YWCA

이나라 간사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



양산YWCA는 양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함께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2월 22일(수) 신도시 부근에서 '아동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관기관 19명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양산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폭력예방,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신임실무자 교육



신임실무자 교육을 3월 3일(금) 진행했다. YWCA 목적이해를 확대해 증경회장이, 회원증모교육을 문상순 직전회장이 강의했다. 울산YWCA 본부, 7개 부속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씨밀레,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청소년문화의집) 신임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진주YWCA

송광은 간사

2017년도 신임지도자 훈련



2월 21일(화) 신임 자원지도자 교육을 진행했다. 신임 이사·공천위원, 자원지도자, 실무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예배와 임원 특송으로 환영했다. 이어 YWCA 목적, 정체성 이해, 역사와 운동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창원YWCA

이아름 간사

회장 이·취임식 예배



창원YWCA는 2월 14일(화) 회장 이·취임식 예배를 진행했다. 김지숙 전 회장의 이임과 신옥희 신임 회장의 취임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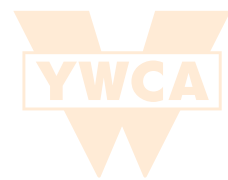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제37회 정기총회



2월 15일(수) 강당에서 제37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2016년 사업·결산보고, 2017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제16대 김주원 회장 이임과 제17대 전점숙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주께로 돌이키겠사오니 다시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다시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95주년. YWCA는 창립 95주년을 맞아 우리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100년을 향하여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시작했다.

아직도 폭력과 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성찰의 기도, 95년 전 YWCA를 세워주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오늘 YWCA에 요청하는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실천하려는 결단의 기도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95일간 전국 52개 회원 YWCA,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YWCA복지관, YWCA청소년쉼터·청소년수련관, YWCA지역아동센터·방과후교실, YWCA생명꿈나무돌봄센터, Y-틴전국협의회,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YWCA싱크머니, YWCA키다리학교, YWCA버들캠프장, YWCA다래교실 등을 비롯해 120여개국 YWCA를 포함한 세계YWCA와 함께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는 기도를 한다. 다음은 주요 기도 말씀과 제목이다. 전문은 YWCA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회개와 고백

1일차 마가복음 10장 44~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감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95년의 역사 동안, YWCA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길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평계를 뒀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100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YWCA가 섬김의 종으로 거룩한 순례의 길에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18일차 아모스 5장 22~24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

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과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는 정의가 살아 숨 쉬지 못함으로 공허한 적이 없었던가 회개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폭력과 차별로 고통받는 여성의 삶에 대한 성찰

43일차 누가복음 10장 38절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여성들에게 열심히 배우라고 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침묵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전통은 여성을 침묵시키는 말씀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인색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정의와 평등의 가장 처음 단계라고 말해도 교회는 외면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해온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7일차 욥기 1장 18~19절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고로 주인에게 고하러 왔나이다.”

사람들은 욥의 아내를 보고 남편을 이해 못한 나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식들까지 잃어버리는 고통을 욥과 똑같이 겪었으나 그는 이해받지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쉽게 비판하고 규정합니다.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이 위로받고 이해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오해받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영

성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실천하려는 결단


81일차 시편 79장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으로 시대적 사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국의 회원 YWCA가 나란히 손잡고 일하게 하시니 감격합니다. 역사의식과 연대감으로 주의 영예를 대대로 드높이는 YWCA인이 되게 하소서.

95일차 요한복음 13장 34~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YWCA가 100년을 향하여 다시 행할 일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YWCA가 주님의 제자됨을 시민들이 느끼고, 더 많은 시민들이 하나님나라 운동에 함께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4월 · April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 목포Y 창립기념일 • 전주Y·Y-틴 대학·청년Y 인준식
2	3 • 월레아침기도회 • 울산Y 회원증모발대식	4 • 수원Y 포럼 '국민주권이란' • 수원Y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개강 • 안양Y 회원증모발대식 • 의정부Y 대래교실 비전교육 • 청주Y 회원증모발대식	5 • 거제Y 노인대학 개강 • 인천Y 창립기념일 • 청주Y 여성주의 학교 개강	6 • 제1차 '길위의 평화 학교' 포럼 • 세종Y 신임이사 연수	7 • 양산Y 회장 이·취임식 • 창원Y 이사역량 강화교육(~8일)	8 • 대전Y·Y-틴 대학·청년Y 인준식 • 양산Y 이사·실무자 워크숍 • 울산Y·Y-틴 대학·청년Y 인준식 • 인천Y 녹색나눔장터 개장식
9	10 • 광양Y 이사·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 대전Y 창립기념일 • 순천Y 회원증모발대식 • 의정부Y 양성평등 서포터즈교육	11 • 광양Y 부활절 계란 나누기	12 • 대전Y 회원증모발대식 • 청주Y 여성주의 학교 강연 • 포항Y 부활절 달걀나눔	13 • 탈핵씨앗강사 양성 학교(~15일) • 세종Y 회원증모운동 • 제천Y 부활절 달걀나눔 • 천안Y 바자회(~14일) • 포항Y 애들아 밥 먹자	14 • 고양Y 직원워크숍(~15일) • 속초Y 부활절 달걀나눔	15 • 남원Y·Y-틴 인준식
16 • 거제Y 부활절 연합예배 • 남원Y 부활절 차나눔 • 목포Y 세월호 3주기 추모식 • 제천Y 열린의사회 의료봉사 • 창원Y 그림책 동아리 개강	17	18 • 광주Y 이사연수 • 마산Y 살림·산모 돌보미 월례회 • 진해Y 창립기념일 • 청주Y 여성주의 학교 강연	19 • 고양Y 탈핵캠페인 • 포항Y 회원증모발대식	20 • 한국YWCA 창립 95주년 기념예배·기념식 • 제2회 좋은 TV 프로그램상 시상식 • 전국회장단 연수(~21일) • 의정부Y 숲전문 강사 양성교육	21 • 대구Y 창립기념일 • 전주Y 창립기념일	22 • 대학·청년Y 청년 열리아카데미' (북·중부) • 서울Y 창립95주년 시민걷기축제
23	24	25 • 안양Y 하루찾집 • 여수Y 회원증모발대식 • 전주Y 봄장날(~26일)	26	27 • 제3차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 광주Y 합창단 정기 연주회	28 • 사천Y 주민복지 박람회 홍보부스(~30일) • 의정부Y 창립 기념일	29 • 대학·청년Y 청년 열리아카데미' (동·서부) • 인천Y 돌봄자치회 야외행사
30						

1922-2017 95 YWCA

창립 95주년 기념예배·기념식

정의, 평화, 생명을 사랑하는 YWCA 10만 회원들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철저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생명의 바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서울 중구 정동길 26)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고백하고,
100년으로
나아가다

- 기념예배 오후 2:00-3:00
기념식 오후 3:00-4:30
- 1부 돌아보다: Go Back 1922**
- 여는 공연
 - 기념사
 - 축사
- 2부 고백하다: 告白**
- 오늘에서 내일을 보다
 - 고백의 노래
- 3부 100년을 향하다: Go 100**
- 95주년 기념사업 소개
 - YWCA에 바란다
 - 우리들의 다짐
 - YWCA 95주년 선언

• 제21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YWCA 강당(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한국YWCA연합회 (우) 04538 서울 중구 명동길 73 전화 02-774-9702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ywcaorea